

미세먼지 배출 위반 1만여건 적발...불법소각 '최다'

환경부, 다량배출 2만3601곳 점검
265건 고발·11억4000만원 과태료
전체 위반사항 중 87.9% 불법소각
영남권 48%인 4337건 가장 많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만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

월 14일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점검해 1만2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 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불법소각 현장 8998곳 등 총 2만3601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위반사항 중 불법소각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8998건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각각 649건(6.3%), 594건(5.8%)이 적발돼 뒤를 이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위반사안 중 265건을 고발 조치하고, 1371건에 대해 약 11억4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68건은 폐쇄·사용중지, 99건은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거나 건설공사장에서 폐목재·폐

자재를 태우는 등 '불법소각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영남권이 4337건(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2894건, 충청권 791건으로 뒤를 이었다.

병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된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에서는 수도권 266건, 충청권 125건, 영남권 122건 순이었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선 수도권 287건, 영남권 172건, 충청권 103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32.3 X 9.5 cm

미세먼지에 체육수업 못하는 경남학교 수도룩

경남 학교 1663곳 중 888개교 체육관 없어 학생 야외활동 비상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내체육관 시설이 없어 체육수업을 못하거나 야외에서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도내 초, 중, 고교, 특수학교 1663곳 가운데 888개 학교만 실내체육관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 2개 중 1개 학교는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체육관 대신 야외에서 하

거나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뉘 단계부터의 실외 수업을 자제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급은 농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0-300면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은 나쁨, 151 이상은 매우 나쁨이다.

도교육청은 체육관이 없는 100여 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500여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간이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234억 원을 투입해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전체 학교 일반교실과 모든 학교 보건실, 돌봄교실, 특수학급 등 3만 1669실의 천장형 냉난방기에 공기 청정 필터를 부착한다.

이를 통해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오랜 시간 공부하는 고3 교실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를 대책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만 현재 일부 학교의 경우 건물 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100까지 측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행한다는 연1회 공기 질 측정이 미세먼지 우려가 심하지 않은 9월-11월에 몰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봄철 학교안 미세먼지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비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건립을 확대해야만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 수습기자

onebelem@ndomin.com